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전영철*

서울대학교

Youngchul Jun. 2004. Plurality and Its Effect on Genericity and Definitenes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8.2, 27-44. We examine semantic properties of Korean plural expressions and how they are related to genericity and definiteness. First of all, Korean plural expressions provide a strong evidence for the plurality theory which discerns between the two sorts of plural individuals such as sum and group. Sum and group are clearly distinguished by morphological markers in Korean i.e., 'tul'-plurals and \emptyset -plurals correspond to sum and group interpretations respectively. Second, the treatment of Korean bare singulars(= \emptyset -plurals) as group accounts for why Korean generic NPs prefer bare singulars to bare plurals. Generic NPs refer to kind, and kind is a special group derived from supremum, therefore both generic NPs and bare singulars refer to group, and generic NPs are realized as bare singulars rather than bare plurals in Korean. Finally, in Korean, plurality and definiteness have little effect on each other although some connection between them has often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복수성(plurality), 총칭성(genericity), 한정성(definiteness), 합(sum), 집단(group), 종류(kind), '들'-복수형(*tul*-plurals), \emptyset -복수형(\emptyset -plurals)

1. 서론

총칭성과 한정성이라는 의미론적 개념들은 관사를 가진 여러 언어들에서 관사의 사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실현된다. 한국어는 관사가 없는 까닭에 총칭성 및 한정성의 실현 방식이 관사가 있는 언어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총칭성과 한정성의 실현 방식을 밝히는 것은 한국어 의미론의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연 언어의 총칭성과 한정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것은 주제 표지 '은/는' 및 격 표지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단/복수형의 선택이 총칭성과 한정성의 실현에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주로 복수 표지 '들'의 유무가 총칭성 및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ycjun@snu.ac.kr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한국언어정보학회 2004년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유용한 평을 해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할 따릅니다.

한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주된 내용이다. 가령 ‘원숭이들은 나무를 잘 탄다’보다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탄다’가 더 적절한 총칭적 표현이라고 여겨진다는지, ‘학생이 시위를 한다’에서 단수형 ‘학생’은 비한정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단/복수 표현들이 총칭성 및 한정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에서 복수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절에서는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적 특성을 논의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3절과 4절에서 각각 총칭성과 한정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2.1 이전의 연구들

한국어의 복수 표지로는 ‘들’, ‘네’, ‘희’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고 전형적인 ‘들’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들’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이다. 첫째, ‘들’이 대표적인 복수 표지이지만, 복수 표현을 위해 ‘들’이 항상 요구되지는 않는다. 가산 명사의 복수형에는 반드시 복수 표지가 붙어야 하는 언어들과는 달리, 가산 명사의 복수형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둘째, 체언 외에도 ‘들’이 부착될 수 있어서 ‘빨리들’, ‘가세요들’과 같이 부사어나 어미 등의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임흥빈(2000)은 체언에 나타나는 ‘들’을 직접 복수 표지라 하고, 비체언에 나타나는 ‘들’을 간접 복수 표지라 하여 두 경우를 구별한다. 본고의 목적상 이 두 가지 특성 중에서 논의될 특성은 첫 번째의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직접 복수 표지의 유무와 관련된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들’이 붙은 복수형을 ‘들’-복수형이라 하고, ‘들’이 붙지 않은 복수형을 \emptyset -복수형이라 하여 구별하겠다.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로는 송석중(1975, 1993), 임흥빈(1979, 2000), 이남순(1982), 강범모(1994, 1999), 곽은주(2001, 2003), 백미현(2002)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범모(1999), 임흥빈(2000), 백미현(2002), 곽은주(2003)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¹

강범모(1999)는 한국어 보통명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복수 표지 ‘들’의 역할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분류사가 존재할 경우에 가산명사와 물질명사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어에는 분류사가 있으면서도 가산명사와 물질명사가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사과들/*물들’, ‘여러 사과(들)/*여러 물(들)’ 등을 들어 복수 표지 ‘들’의 역할을 언급한다. 한편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에서, 한국어와 영어에는 모두 가산/물질 명사의 구분이 존재하나, 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두 언어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영어는 단수와 복수의 가산 명사의 의미 영역이 각각 단수

¹ 임흥빈(2000)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저기에는 송석중(1975, 1993), 임흥빈(1979), 이남순(1982)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임흥빈(2000)의 참조로 대신한다. 한편, 임흥빈(2000)은 임흥빈(1979)에서 발전한 것으로, 특히 간접 복수에 대한 논의가 한층 심화되어 이른 바 사건 복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어의 복수성을 설명한다. 강범모(1999)와 곽은주(2003)은 각각 강범모(1994)와 곽은주(2001)의 논지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다.

개체들의 집합과 복수 개체들의 집합에 대응하는 반면에, 한국어의 단수 가산 명사는 단수 개체들과 복수 개체들 모두의 집합에 대응하고 복수 가산 명사는 복수 개체들의 집합에 대응한다고 한다.

(1) a. 영어

apple \Rightarrow [[apple']]; apples \Rightarrow [[*apple']] - [[apple']]

b. 한국어

사과 \Rightarrow [[*apple']]; 사과들 \Rightarrow [[*apple']] - [[apple']]

이에 따르면 'apples'와 '사과들'은 모두 복수 개체들의 집합에 대응하여 동일한 의미 영역을 가진다. 한편 '사과'는 단수 개체들의 집합과 복수 개체들의 집합에 모두 대응하여, 복수 개체는 '사과들'뿐만 아니라 '사과'에 의해서도 실현된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사과들'과 '사과'에 의해 실현되는 복수 개체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다.

임홍빈(2000)은 '들'의 개체화 기능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다음 예의 '사람'을 가산성에 의존하여 단수로만 처리하는 이남순(1982)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2) a. 사람이 왔다.

b. 사람들이 왔다.

(2a)의 '사람'은 언제나 단수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위해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두셋이 온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데, 같이 온 사람들 각각을 따로따로 문제 삼지 않을 경우에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동일한 상황에서 (2b)를 사용하면 같이 온 사람들 각각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들'은 개별화나 개체화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emptyset -복수형과 '들'-복수형의 두 가지 복수 개체들을 구별하여 전자와는 달리 후자만이 개별화된 복수 개체를 지시한다고 주장하였다.

백미현(2002)은 실세계의 공간에 복수의 개체들이 존재하지만 화자가 이들을 각각의 개체로 파악하는 것보다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즉, 한국어에는 무표형 복수와 유표형 복수가 구별된다고 주장하여, 복수 개체를 한 덩어리로 인지하는 집단적 복수는 무표적이고, 복수 개체 각각을 따로 인지하는 분산적 복수는 유표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emptyset -복수형은 한 덩어리로서의 복수 개체를 가리키는 무표형인 반면에 '들'-복수형은 복수의 개체들이 각각 인지되는 유표형이라고 했다..

곽은주(2003)는 복수 개체가 합(sum)과 집단(group)의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견해(Link 1984, Landman 1989)를 받아들여 한국어의 두 가지 복수형의 의미 차이를 밝히려 하였다.² 합과 집단의 두 해석 중에서 합 해석만이 분산적(distributive) 해석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두 복수형의 사용을 대조하였다.

² 합과 집단에 대해서는 2.2에서 상술할 것이다.

- (3) a. 학생들이 각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b. #학생이 각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 (4) a. 엄마가 아이들에게 풍선 하나씩을 주었다. (분산 표지 ‘씩’, Choe 1987)
 b. #엄마가 아이에게 풍선 하나씩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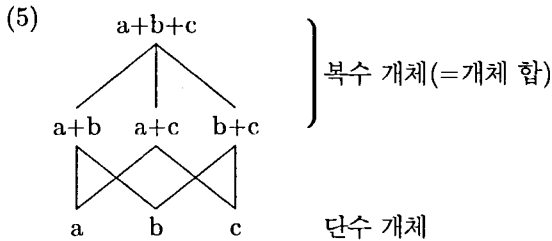
두 복수형들 중에서 ‘들’-복수형만이 분산적 해석을 유도하는 ‘각자’나 ‘씩’과 어울릴 수 있으므로 ‘들’-복수형은 합 해석을, \emptyset -복수형은 집단 해석을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들’-복수형과 \emptyset -복수형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의 의미 차이를 설정하지 않는 입장이고(강범모 1999),³ 다른 하나는 이들 사이에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임홍빈 2000, 백미현 2002, 곽은주 2003). 의미 차이를 설정하는 위 세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직관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다.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해졌다고는 하나 임홍빈(2000)과 백미현(2002)은 인지 의미론적 설명 방식으로 두 복수형의 의미 차이를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곽은주(2003)는 복수 개체를 합과 집단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복수 이론에 바탕을 둔 형식의미론적인 설명 방식을 채택한다. 본고는 두 종류의 복수형들이 의미 차이를 지닌다는 입장을 취하며, 그 설명 방식으로는 형식의미론적인 것을 택한다. 다음 절에서는 합과 집단의 두 가지 복수 개체를 구분하는 복수 이론에 의거하여 ‘들’-복수형과 \emptyset -복수형의 의미론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2 두 종류의 복수 개체: 합과 집단

복수 명사구의 의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형식의미론적 시도는 Link (1983)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모형의 개체 영역은 완전 원자 합 반격자(complete atomic join semilattice)인 $\langle E, \leq, +, AT \rangle$ 의 구조를 가진다. E는 부분 관계(part-of relation) \leq 에 의해 부분적으로 순서 지워진(partially ordered) 개체들의 집합이다. E는 단수 개체(singular individuals)뿐만 아니라 복수 개체(plural individuals)로 구성되는데, 복수 개체는 합 연산(join operation) $+$ 에 의해 형성되는 개체 합(individual sum)이다. AT는 원자들(atoms)의 집합으로 E의 부분집합이다. 간단한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³ 한국어 복수에만 관련된 강범모(1994, 1999)의 논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으나, 강범모(1999)에서는 합과 집단의 구별에 대한 동기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강범모(1994, 1999)에서는 논의의 목적상 이 두 복수형에 대한 의미 차이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편이 더 적절한 기술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두 복수형의 의미에 대한 이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E = \{a+b+c, a+b, a+c, b+c, a, b, c\}$ 이고 $AT = \{a, b, c\}$ 이다. 개체 영역에 복수 개체들을 도입함으로써 복수 명사는 복수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단수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하는 단수 명사와 효과적으로 그 의미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

그 후 Link(1984)에서는 복수 명사의 해석이 단순히 개체 합 해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체 합 이상의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가령, ‘David and Tina’가 David와 Tina의 단순한 합을 나타내는 해석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합하여 이루는 하나의 집단을 나타내는 해석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뒷받침하는 여러 예들이 Landman(1989)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한 증거로서 Link(1984)로부터 인용된 한 가지 증거를 들여보자. Leitches 가문과 Latches 가문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문장은 3중으로 중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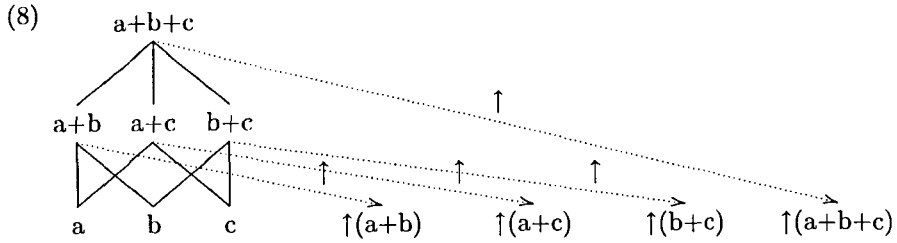
(6) The Leitches and the Latches hate each other.

우선 두 가문의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의 합을 형성하여 가문을 가리지 않고 구성원 간에 미움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7)과 같은 해석이 나타난다.

(7) The Leitches hate each other and the Latches hate each other.

‘hate each other’가 Leitches 가문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합과 Latches 가문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합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해석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복수 명사들이 합의 해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해석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두 가문들 간에 존재하는 미움은 가문 구성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들 간의 문제로 해석된다. 이 세 번째 해석에서는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미움의 관계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서 몇몇 구성원들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인 상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복수 개체를 합과 집단의 두 종류로 파악하게 되면 Link의 반격자 모형은 좀더 정교해진다. 기존의 복수 개체인 복수 합으로부터 집단 형성함수(group formation function) \uparrow 를 거쳐 새로운 복수 개체인 집단이 도출된다. 그런데 합과는 달리 집단은 원자로서 원자들의 집합 AT에 속한다. AT는 단수 개체뿐만 아니라 집단을 포함하게 되어 더욱 풍부해지는데, 단수 개체를 순수 원자(pure atom)라 하고 집단을 비순수 원자(impure atom)라 하여 구분한다. 이러한 변화를 (5)의 모형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단수 개체 a, b, c 로부터 합 연산 $+$ 에 의해 복수 개체인 합 $a+b, a+c, b+c, a+b+c$ 가 도출되고, 합으로부터 집단 형성함수 \uparrow 에 의해 또 다른 복수 개체인 집단 $\uparrow(a+b), \uparrow(a+c), \uparrow(b+c), \uparrow(a+b+c)$ 가 도출된다. 그리고 $AT = \{a, b, c, \uparrow(a+b), \uparrow(a+c), \uparrow(b+c), \uparrow(a+b+c)\}$ 이다.

복수 개체가 합과 집단으로 세분된 모형에 기반하여 ‘들’-복수형과 \emptyset -복수형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 보자. 우선 임홍빈(2000)과 백미현(2002)에서 관찰한 직관을 상기해 보자. ‘들’-복수형이 개별화의 의미를 동반한다는 임홍빈(2000)의 관찰이나 \emptyset -복수형이 복수 개체를 한 덩어리로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는 백미현(2002)의 관찰은 ‘들’-복수형이 합을 지시하며 \emptyset -복수형이 집단을 지시한다는 입장과 부합한다. 완전 원자 합 반격자 모형에 입각하여 한국어 복수형의 해석을 추구한 곽은주(2003)도 분산적 사용의 가능성에 입각하여 합과 집단의 두 해석을 구분하여 이와 동일한 입장에 이른다.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을 의미하는 합은 각 개체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분산적 용법에 사용될 수 있지만 복수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자로 해석되는 집단은 분산적 용법에 사용될 수 없다.

(8)의 모형에 기반하여 한국어 명사들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 b, c 가 각각 민수, 민호, 민희 세 학생을 가리킨다고 하자. 단수 표현 ‘학생’, 복수 표현 ‘학생- \emptyset ’와 ‘학생-들’이 가능한데, 이 표현들은 이 모형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지시를 가진다.

- (9) a. $\llbracket \text{학생} \rrbracket = \{a, b, c\}$
 b. $\llbracket \text{학생-}\emptyset \rrbracket = \{\uparrow(a+b), \uparrow(a+c), \uparrow(b+c), \uparrow(a+b+c)\}$
 c. $\llbracket \text{학생-들} \rrbracket = \{a+b, a+c, b+c, a+b+c\}$

이 상황에서 영어의 단수 표현 ‘student’와 복수 표현 ‘students’는 다음의 지시를 가진다.

- (10) a. $\llbracket \text{student} \rrbracket = \{a, b, c\}$
 b. $\llbracket \text{students} \rrbracket = \{a+b, a+c, b+c, a+b+c\}$ or $\{\uparrow(a+b), \uparrow(a+c), \uparrow(b+c), \uparrow(a+b+c)\}$

영어에서 가산 명사의 복수형에는 항상 복수 표지가 붙어야 하며 이 유일한 복수형이 합과 집단의 두 가지 복수 개체를 모두 지시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 복수 개

체가 형태론적으로 다른 두 가지 복수형에 의해 구별된다. 그런데 한 복수 표지가 영형태(zero morpheme)이어서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형이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는 단/복수형의 사용과 관련하여 표면적 단/복수형의 상호 교체가 항상 허용되지는 않게 된다. 표면적으로 단수형인 ‘학생’은 실제로는 단수형과 0-복수형의 두 가지 구실을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어의 ‘학생’은 영어의 ‘student’에 대응할 뿐 아니라 ‘students’의 집단 해석에도 대응한다. ‘학생들’은 ‘students’의 합 해석에 대응될 뿐이지 집단 해석에는 대응되지 않는다.⁴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단수 개체	복수 개체	
		집단	합
	원자	비원자	
한국어	‘학생’	‘학생들’	
영어	‘student’	‘students’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복수 이론의 체계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두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첫째,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 복수 개체인 합과 집단이 형태론적으로 구별된다. 둘째, 영어와는 달리 원자들의 집합 AT가 한국어에서는 표면적으로 단일하게 실현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의 논의 기반인 복수 이론의 특성이 한국어에서 형태론적으로 잘 드러남을 뜻한다. 두 가지 복수 개체인 합과 집단이 구분된다는 특성과 원자는 순수 원자와 비순수 원자로 구분된다는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어의 이러한 현상은 복수 이론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3 수명사 구성과 ‘들’

가산 명사 복수형의 ‘들’과 관련되어 ‘두 학생들’이나 ‘두 사과들’과 같이 수사나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가산 명사 뒤의 ‘들’의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표현들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우선 이러한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관찰은 송석중(1993), 백미현(2002) 등에서 나타난다. 송석중(1993)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터어키어와 헝가리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소개하면서 소위 우랄 알타이어족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백미현(2002)은 수사가 개별화의 기능을 이미 하는데 ‘들’이 덧붙여짐으로써 잉여적이 되어 부적절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강범모(1994)과 임홍빈(2000)은 이러한 사용이 허용되기도 한다고 본다. 강범모(1994)는 ‘두 학생들’과 같은 인간 명사의 경우는 허용되나 ‘두 사과들’과 같이 비인간 명사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유정성이 높을수록 개별성이 높다는 유정성 위계를 도입하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⁵ 즉, 유정성이 높은 인간 명

⁴ 앞에서 살펴본 강범모(1994, 1999)에 의하면 ‘students’와 ‘학생들’은 모두 [[*apple]-[apple]]의 동일한 해석을 받아 번역시에 이 둘은 항상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예측된다. ‘students’가 ‘학생들’보다는 ‘학생’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당한 경우도 있다. 본고에 따르면 집단으로 쓰일 때가 될 것이다.

⁵ 개별성이 유정성 위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송석중 1993, 강범모 1994, 임홍빈 2000, 백미현 2002, 곽은주 2003 등).

사는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별성을 나타내는 ‘들’이 용이하게 부착되지 만(‘두 학생들’), 유정성이 낮은 명사는 개별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개별성 표지인 ‘들’과 공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더 나아가 임홍빈(2000)은 ‘들’의 개별성이 유정성 위계를 넘어서서 맥락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 (12) a. 두 친구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위기를 넘겼다.
 b. 두 책들에 있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이 문장들에서는 개체의 특이성이 부각되므로 개체들의 개별화가 요구되어 유정 명사인 ‘두 친구들’뿐만 아니라 비유정 명사인 ‘두 책들’에도 개별화의 표지 ‘들’이 허용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존재문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 (13) a. ?*너에게는 두 친구들이 있다.
 b. ?*두 책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존재의 의미만이 부각되므로 개체의 특이성이 덜 부각되어 개체들의 개별화가 중요하지 않아서 비유정 명사뿐만 아니라 유정 명사에도 개별화 표지 ‘들’의 사용이 어색하다고 한다.

물론 영어에서는 ‘two men’, ‘two books’와 같이 수사와 가산 명사의 복수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두 사람들’, ‘두 책들’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강범모(1994)나 임홍빈(2000)에서 볼 수 있듯이 경우에 따라 허용되는 것도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적으로 불허하는 송석중(1993)과 백미현(2002)의 설명보다는 강범모(1994)와 임홍빈(2000)의 태도가 바람직하다. 위에서 살펴본 복수 개체의 특성 및 ‘들’의 역할을 좀더 부각시켜 이 현상을 다시 살펴보자.

백미현(2002)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경우에 수사는 ‘사람’에 의해 표출되는 집단을 셀 수 있는 여러 단위로 해체시켜 일종의 개별성을 발생시키므로 여기에 또 다시 덩어리 단위의 해체를 의미하는 복수 표지 ‘들’을 첨가하는 것은 잉여적이어서 ‘두 사람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에 의해 복수성이 도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수성이 항상 개별성과 연결되는지는 위문이다. 가령 영어의 ‘two men’에서 ‘two’에 의해 복수성이 도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성이 동시에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 ‘Two men lift the box’에서 ‘two men’의 ‘two’에 의해 복수성이 도입되지만, 이 복수성은 두 가지로 실현된다. 즉 두 사람 각각이 그 상자를 들었다는 해석에 의해 개별성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그 상자를 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여 개별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복수성의 두 종류인 합과 집단에 해당한다. 수사에 의해 복수성이 도입되지만 그 복수성이 합에 해당하는지 집단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그 상자의 무게와 같은 전후 맥락에 의해 중의성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고, ‘each’나 ‘together’ 등의 첨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복수 표지 ‘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12)의 예들과 같이 두드러진 복수의 개별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들’이 허용되는 반면에 (13)과 같이 두드러진 복수의 개별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들’의 사용이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구성원의 개별성이 드러나는 복수 개체의 해석은 바로 합 해석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설명은 ‘들’-복수형이 합 해석을 가진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3. 복수성과 총칭성

한국어에서는 원형 복수(‘사과들’)보다 원형 단수(‘사과’)가 총칭 표현으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⁶ 전영철(2003)은 다음 예들에서 ‘소방수’와 ‘태풍’은 총칭적 해석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소방수들’과 ‘태풍들’은 총칭적 해석보다는 단지 복수의 개체를 지시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 (14) a. 소방수는 가용하다.
 b. 태풍은 태평양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c. 소방수들은 가용하다.
 d. 태풍들은 태평양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으로 그칠 뿐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집단과 총칭성의 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우선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총칭성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1 두 가지 총칭성: 총칭명사구와 총칭문

총칭성은 일반성을 일컫는데, 많은 경우에 총칭성의 실현은 총칭적인 주어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서 파악되어 왔다.

- (15) a. 인간은 유한하다.
 b. 한국인은 일찍 일어난다.

그러나 총칭성이 명사구와 문장에서 항상 동시에 실현되지는 않는다. (16a)는 총칭적 주어가 비총칭적 문장에 쓰인 예이고, (16b)는 비총칭적 주어가 총칭문에 쓰인 경우이다.

- (16) a. 한국인은 2002 월드컵에 열광했다.
 b. 민호는 일찍 일어난다.

⁶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에서도 원형 복수보다 원형 단수가 총칭적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에 영어에서는 총칭명사구로 원형 복수 및 ‘정관사+단수명사’가 주로 사용되고, 불어에서는 ‘정관사+복수명사’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영철(2003)은 이 둘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의미 표상을 부여하는 방식을 달리하였다. 총칭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의미 표상인 삼부 구조에서 두 가지 총칭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상하였다.

(17) a. GEN_{x,s}[한국인(x) & C(x,s)][일찍.일어난다(x,s)] (15b)

b. GEN_x[한국인(x)]∃s[2002.월드컵에.열광했다(x,s)] (16a)

c. GEN_s[C(민호,s)][일찍.일어난다(민호,s)] (16b)

총칭 운용자 GEN이 결속하는 변항의 종류에 따라 총칭문과 총칭명사구의 두 총칭성을 구별하였다. 상황 변항 s를 결속하면 총칭문을, 개체 변항 x를 결속하면 총칭명사구를 표상한다. 우리는 본고에서 가산 명사의 복수성이 실현되는 양상을 논의하는 까닭에 본고에서 다루게 될 총칭성의 분야는 총칭명사구에 국한될 것이다. 즉 개체 변항이 GEN에 의해 결속되는 경우만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3.2 집단과 종류

한국어에서 원형 단수가 총칭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은 박기성(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그는 영어와 한국어의 총칭성을 비교하면서 앞의 (1)에 나타나는 강범모(1999)의 견해에 근거하여, “한국어 ‘사과’의 단수형은 집합적으로 ‘사과들’의 복수형 표현을 포함하는 관계이고 따라서 단수/복수형을 포괄하는 형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단수형인 ‘사과’가 무표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같은 관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어에서는 총칭 지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는 단수형 자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원형 단수가 원형 복수보다 빈도가 높으니 총칭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상당히 주관적인 설명에 그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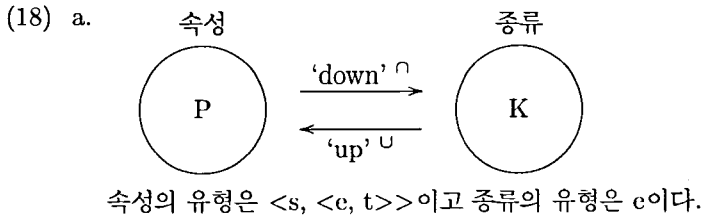
총칭명사구가 지시하는 가장 전형적인 대상(object)은 종류(kind)이다.⁸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종류란 그 종류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을 끌어안는 동시에 그 모든 구성원들의 집합을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가령 ‘사자’가 종류를 지시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자와 연결되는 동시에 그 모든 사자들의 집합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관적 설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집단의 정의와 직결된다. 복수 개체이면서 동시에 원자로 파악한 집단의 개념과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종류가 집단과 개념적으로 통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왜 한국

⁷ 한국어에서 원형 단수가 총칭적 해석으로 선호된다는 관찰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행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⁸ 총칭명사구의 해석은 다양하여 하나로 파악하기 어렵다. Krifka 외(1995)에는 8가지 가능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종류 술어 해석(kind predicate interpretation), 집합적 속성 해석(collective property interpretation), 평균 속성 해석(average property interpretation), 특성적 속성 해석(characterizing property interpretation), 변별적 특성 해석(distinguishing property interpretation), 대표 날개체 해석(representative object interpretation), 전위적 해석(avant-garde interpretation), 내적 비교 해석(internal comparison interpretation). 그러나 이 여러 해석들이 종류의 해석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칭명사구의 전형적인 지시 대상을 종류라고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의 총칭 명사구로 원형 단수가 선호되는지는 저절로 설명이 되는 셈이다. 총칭명사구는 종류를 지시하고 집단은 원형 단수, 즉 0-복수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제 종류가 집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의에는 Chierchia(1998)가 큰 도움이 된다.

Chierchia(1998)는 담화 영역을 확대하여, 단수 개체뿐만 아니라 복수 개체, 물질, 종류를 담화 영역으로 도입하는데, 여기에서 종류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부터 살펴보자. 종류에 대한 Chierchia(1998)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르면, 어떤 자연적 속성(natural property)에는 이에 대응하는 종류가 존재하여, 가령 개라는 속성(the property of being a dog)에는 개 종류(the dog-kind)가 대응한다. 역으로 어떤 자연적 종류(natural kind)에는 이에 대응하는 속성이 존재한다. 속성과 종류 사이의 대응은 두 함수 ‘ \cap ’과 ‘ \cup ’에 의해 포착한다.



b. 예: $\cap \text{DOG} = d, \cup d = \text{DOG}$

DOG를 개-속성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종류는 $\cap \text{DOG}$ 이고, d 를 개-종류라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개-속성은 $\cup d$ 이다. 이러한 생각은 Chierchia(1984)에서 먼저 제안되었는데, 각 속성은 개체 대응물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보통 명사와 관련된 속성에 대한 개체 대응물은 종류이고, 동사와 관련된 속성의 개체 대응물은 동작 유형(action types)으로 파악한다.⁹ 종류는 술어적 보통 명사(predicative common nouns)의 명사화(nominalization)로 파악하고, 술어적 보통 명사는 종류의 술어화(predicativization)로 파악한다. 즉, \cap -운용자는 명사화 기능을 하며 \cup -운용자는 술어화 기능을 한다. 나아가 Chierchia는 어떤 세계에서의 종류를 실례들의 총체(the totality of its instances)로 포착하여, 가령 이 세계에서의 개-종류를 개들의 총체 혹은 세상 모든 개들의 융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Chierchia의 생각이 모형화/형식화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우선 다음과 같은 영역이 도안된다.

- (19) a. U is a join atomic semilattice
 b. AT is the atoms of U
 c. S is the set of situations

⁹ 이와 같은 생각은 철학 쪽에서 Cocchiarella(1976)가 종류를 명사화된 속성(nominalized property)으로 파악한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Chierchia 1984: 18).

d. $K \subseteq U^s$ is the set of kinds

e. $K \subseteq AT$

술어화 함수와 명사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0) Let d be a kind. Then for any world/situation s ,

$$\cup_d = \begin{cases} \lambda x[x \leq d_s], & \text{if } d_s \text{ is defined} \\ \lambda x[\text{FALSE}], & \text{otherwise} \end{cases}$$

where d_s is the plural individual that comprises all of the atomic members of the kind in s .¹⁰

(21) For any property P and world/situations s ,

$$\cap_P = \begin{cases} \lambda s \iota P_s, & \text{if } \lambda s \iota P_s \text{ is in } K \\ \text{undefined,} & \text{otherwise} \end{cases}$$

where P_s is the extension of P in s and $\iota X =$ the largest member of X if there is one.

Chierchia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종류를 일종의 개체 개념(individual concepts), 즉 세계로부터 복수 개체로의 함수(functions from worlds into pluralities)로 처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 개체를 그 종류의 모든 실례들의 합(the sum of all instances of the kind)으로 파악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집단(group)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종류를 논한다. 그러나 논의 중간 중간에 2.2에서 살펴본 집단의 개념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는 대목은 (19e)이다. 종류의 집합 K 를 원자들의 집합 AT 의 부분 집합으로 본 것은 종류를 원자로 본 것이다. 즉 종류를 복수 개체가 되면서 동시에 원자로 파악한 것인데 이는 다름 아닌 집단에 해당한다. 집단을 끌어 들여 Chierchia의 종류를 좀더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세계로부터 그 종류의 모든 실례들의 합의 집단(the group of the sum of all instances of the kind)으로의 함수가 된다. 그런데 모든 실례들의 합은 바로 상한(supremum)이므로, 어떤 세계에서의 종류란 상한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속성 P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류와 집단의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22) \cap_P = \lambda s \uparrow \iota P_s \text{ or } \lambda s \uparrow \text{supremum}(\llbracket P_s \rrbracket)$$

이렇듯 종류는 일종의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보통의 집단과는 달리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특수한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¹⁰ Chierchia(1998)에는 (20)의 마지막에 있는 'in s '가 들어 있지 않으나, 한 심사자의 지적을 받고 내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첨가하였다.

(23) a. 상한으로부터 도출된다.

b. 순수 원자들의 집합이 최대한으로 크다.

이제 종류가 일종의 집단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한국어에서 총칭 명사구가 원형 단수로 실현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총칭명사구는 종류를 지시하고, 종류는 일종의 집단에 해당하고, 집단은 원형 단수(=∅-복수형)에 의해 실현되므로 한국어의 총칭명사구는 원형 단수를 선호한다.

종류와 집단이 이렇듯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관찰을 살펴보자. 곽은주(2003)가 지적하듯이 어떤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된 사건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가령, 어떤 과의 교수가 넷인데 한 명이 연구년이어서 나머지 세 교수가 학과 교수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은 그 과 교수회의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이는 바로 총칭성의 특성이기도 하다. ‘개가 짖는다’라는 총칭문의 총칭 주어 ‘개’가 이 세상의 모든 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를 지시한다. 성대에 이상이 있어 짖지 못하는 개가 있더라도 이 문장은 성립한다. 집단과 종류의 공통성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다음의 예에서는 집단과 종류에 대한 중의성이 감지되는 듯하다.

(24) 사과가 배보다 맛있다.

가령 뷔페에서 후식으로 사과와 배를 맛보고 나서 하는 말이라면 집단적 해석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화자의 취향에 대해 말할 때라면 종류의 해석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류가 집단의 일종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의적 해석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해석 모두 사과나 배의 총체를 지시하는 것이나 총체성이 발휘되는 범위가 다를 뿐이다. 전자는 뷔페 내에 있는 사과와 배에 대한 총체를 지시하는 반면에 후자는 이 세상의 사과와 배에 대한 총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수한 집단으로서 종류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인 ‘순수 원자들의 집합이 최대한으로 크다’는 데에 반영되어 있다.

4. 복수성과 한정성

4.1 단/복수형과 한정성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어서 어떤 명사구의 (비)한정성을 책임지는 표지가 여의치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정성에 대한 정보는 의사소통의 필수 사항이어서 한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해 (비)한정성이 표현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 중의 하나는 한정성이 ‘들’의 유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것이다.

한정성의 관점에서 보통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단수형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보인다. 가령, ‘학생들’이 한정적 또는 비한정적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학생’에 대해서는 오로지 비한정적이라는 견해(백미현 2002, 곽은주 2003)도 있고, 한정적 또는 비한정적이라는 견해(전영철 2002)도 있다.

아래의 예는 곽은주(2003)에서 인용한 것인데, 복수형 ‘학생들’은 한정적 혹은 비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단수형 ‘학생’은 비한정적인 해석만을 가진다고 한다.

(25) a. 내가 학생들을 데려 오겠어.

b. 내가 학생을 데려 오겠어.

그러나 비한정적인 해석이 선호되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해석인 것 같지는 않다. 가령 다음의 예를 보자.

(26) A: 누가 학생을 데려 오겠니?

B: [내가]_{focus} 학생을 데려 오겠어.

이 대화에서 B는 ‘학생을’을 빼고 ‘내가 (데려 오겠어)’라고 더 빈번히 말하겠으나, ‘학생을’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이 한정적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도 맥락에 의해 ‘학생’이 이미 노출된 상태라면 ‘학생’은 한정적일 수 있다. 어떤 학생이 찾아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중에 그 학생이 오는 것을 보고 ‘학생이 와요’라고 하면 이 ‘학생’은 당연히 한정적이다. ‘학생들’과 같은 복수형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같은 단수형도 비한정적으로만 쓰이지 않고 한정적으로도 쓰인다.

전영철(2002)은 다음의 예문들과 같이 한국어의 원형 단수가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와 함께 특정문(particular sentences)을 이룰 때 한정적으로도 비한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7) a. 개가 자고 있어.

b. 집에 오는 길에 개를 봤어.

그리고 언어외적 맥락이 ‘개’의 한정성에 대한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음운론적 초점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개’에 고음조가 할당되면 비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관찰은 (25b)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학생’에 고음조가 할당되지 않고 ‘내가’나 ‘데려 오겠어’에 고음조가 할당되면 ‘학생’은 한정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과 같이 총칭명사구로 쓰이는 원형 단수는 단수형이 한정적으로도 사용된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28) 개는 영리하다

이 문장은 총칭문이며 총칭 주어 ‘개’는 개-종류를 지시한다. 3.2에서 논의한 것에 따르면, 개-속성 DOG에 대하여 개-종류 d 는 다음과 같이 표상된다.

(29) $\lambda s \uparrow (\iota \text{DOG}_s)$ 또는 $\lambda s \uparrow \text{supremum}(\llbracket \text{DOG}_s \rrbracket)$

이오타(*l*)-운용자나 상한(supremum)은 관련 집합들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을 나타내어 그 자체가 한정성을 함의하므로, 종류의 해석으로 사용되는 ‘개’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에서 복수형뿐만 아니라 단수형도 한정성의 관점에서 중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복수성이 한정성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관련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보고들이 있다.

(30) a. 중국어(Li 1999)

haizi-men ‘the children’: 오직 한정적

haizi ‘the/some child/children’: 한정적/비한정적

b. 일본어(Nakanish 외 2004)

otokonoko-tati ‘the/some boys’: 한정적/비한정적

otokonoko ‘the/some boy/boys’: 한정적/비한정적

두 언어에서 모두 단수형이 한정적/비한정적으로 중의적인 반면에 복수형은 중국어에서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반면에 일본어에서는 한정적/비한정적으로 중의적이다.¹¹ 단/복수형이 모두 한정성의 관점에서 중의적이라는 점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일본어의 단수형도 단수 및 복수 개체를 지시할 수 있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단수형이 한정성과 복수성의 관점에서 4중으로 중의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복수성이 한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복수형은 반드시 한정적이라는 제약이 있다.

4.2 ‘지시사+단수형’의 복수성

위에서 한국어는 복수성이 한정성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역으로는, 즉 한정성이 복수성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지시사+단수형’이 ‘단수형’과는 달리 집단적 복수를 지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남기심/고영근 1985, 송석중 1993, 강범모 1994, 백미현 2002, 곽은주 2003). 이 절에서는 한정성이 복수성을 제한한다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31) a. 사과가 크다.

b. 이 사과가 크다.

(31a)의 ‘사과’는 상황에 따라 단수 개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사과 하나를 손에 쥐고서), 복수 개체(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다(상자 안에 든 사과 더미를 보면서). 그런데 이와

¹¹ Nakanish 외(2004)는 ‘otokonoko-tati’와 같은 복수형에 대해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오직 한정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동일한 상황들에서 (31b)의 발화도 가능하다. 이때 ‘이 사과’는 한정적인 단수 개체와 한정적인 복수 개체(집단)를 가리킨다. ‘사과’는 한정성에 있어 중립적이지만 ‘이 사과’는 한정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복수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과’는 [±한정]과 [±복수]에 의해 4중으로 중의적이지만, ‘이 사과’는 [±복수]에 의해 2중으로 중의적일 뿐이다. 임홍빈(2000)의 다음 예는 이러한 입장을 잘 포착한다.

(32) 이 국회의원이 다 무엇을 하느냐?

부사 ‘다’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국회의원’은 분명히 단수 개체가 아닌데도 복수 표지 ‘들’이 쓰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은 분명히 복수 개체를 가리킨다고 본다. ‘지시사+단수형’이 한정적인 복수 개체(집단)을 가리키는 예이다. 이렇듯 ‘지시사+단수형’도 집단적 복수를 지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다음으로, 한정성이 복수성을 제한한다는 주장들 중에서 두 가지 예를 검토해 보자. 우선 강범모(1994)는 다음의 ‘이 사과’가 단수 개체와 하위 종류(subkind)를 가리켜서 중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지시사+단수형’은 단수 개체만을 지시할 뿐이지 복수 개체는 지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3) 이 사과가 맛있다.

그러나 (33)은 (31b)와 유사하므로 우리의 설명에 따르면 단수 개체 및 복수 개체(집단)를 모두 지시할 수 있다. 그런데 유사한 예를 두고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복수 개체에 대한 서로 다른 체계 때문이다. 우리는 복수 개체로 합과 집단을 다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강범모(1994)는 단지 합만을 복수 개체로 설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서 이러한 차이가 비롯된다. (33)에서 ‘이 사과’가 하위 종류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체계 속에서 집단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다. 우리는 3.2에서 종류가 집단의 특수한 유형임을 살펴보았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하위 종류도 집단의 범주 안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지시사+단수형’에 대한 강범모의 이견은 해소된다고 하겠다.

곽은주(2003)는 다음의 예를 통해 ‘지시사+단수형’이 집단을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

(34) 그 학생들이/#그 학생이 모였다.

집단 술어(collective predicate) ‘모이다’의 주어로 ‘그 학생들’은 허용되지만 ‘그 학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학생’은 집단의 해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은 사정이 이렇듯 단순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35) a. 그 별들이/그 별이 모였다.

b. 그 사과들이/그 사과가 모아졌다.

이 예문들에서는 ‘그 별’ 및 ‘그 사과’가 허용된다. 이것은 유정성 위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인간]의 ‘학생’은 유정성이 아주 커서 개별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서 복수 개체를 지시할 때 개별성을 유효적으로 표시하는 ‘들’이 덧붙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이보다 유정성이 낮은 표현들은 ‘들’이 동반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관찰을 통하여 단수형뿐만 아니라 ‘지시사+단수형’도 집단적 복수를 지시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지시사+단수형’은 한정성이 복수성을 제한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들’-복수형과 \emptyset -복수형의 역할 분담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 사과들’과 ‘이 사과’가 각각 합과 집단을 지시함을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a. 이 사과들은 각각 모양이 다르다.

b. *이 사과는 각각 모양이 다르다.

전술하였듯이, ‘각각’의 분산적 해석은 합 해석을 요구하는데 ‘이 사과들’에 의해 충족된다. ‘이 사과’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집단의 해석을 가져서 ‘각각’과 어울리지 못한다.

5. 결론

우리는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적 특성을 살피고, 이와 관련된 총칭성 및 한정성의 실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한국어 복수 표현의 체계는 복수성을 합과 집단의 두 종류로 나누는 복수 이론의 체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들’-복수형은 합의 해석에, \emptyset -복수형은 집단의 해석에 대응하므로 합과 집단의 두 가지 복수성은 한국어에서 형태론적 표지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의 총칭 명사구로 원형 복수보다 원형 단수가 선호되는 이유는 총칭 명사구가 지시하는 종류는 일종의 집단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총칭명사구는 상한에서 도출되는 집단을 지시하므로 \emptyset -복수형에 의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으며, \emptyset -복수형이란 형태적으로 바로 원형 단수이므로 한국어의 총칭 명사구는 원형 단수를 선호한다. 셋째, 한국어에서 복수성과 한정성은 상호간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복수형과 마찬가지로 단수형도 비한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복수성이 한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지시사+단수형’이 단수 개체뿐만 아니라 집단적 복수도 지시할 수 있어서 한정성이 복수성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본고에서는 복수 표현과 관련된 의미론적 특징 중에서 일부만을 다루었다. 즉 복수 표지의 유무에 따른 의미론적 특성만 다루었을 뿐이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 비체언에 나타나는 간접 복수 표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임홍빈(2000)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간접 복수 표지의 적절한 설명을 위해서는 사건 복수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건 의미론과 복수 이론의 통합을 뜻하는데, 사건 복수의 도입을 통해 한국어 복수 표현의 보다 바람직한 설명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부수적인 결과로 총칭성 및 한정성에 대한 또다른 시각의 설명이 기대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 Chierchia, G. 1984. *Topics i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Infinitives and Gerunds*. Ph.D. thesis, UMass at Amherst.
- Chierchia, G.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339-405.
- Cocchiarella, N. 1976. On the Logic of Natural Kinds. *Philosophy of Science* 43, 202-222.
- Landman, F. 1989. Groups I, II.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pp. 559-605, pp. 723-744.
- Landman, F. 1996. Plurality.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Oxford, pp. 425-457.
- Li, Y. 1999. Plurality in a Classifier Language. *Journal of East Asian Language* 8, 75-99.
- Link, G.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 and Mass Terms: A Lattice Theoretic Approach. In R. Bäuerle, C. Schwarze, and A. von Stechow (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Walter de Gruyter, Berlin, pp. 302-323.
- Link, G. 1984. Hydras: On the Logic of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with Multiple heads. In F. Landman and F. Veldman (eds.), *Varieties of Formal Semantics*. Foris, Dordrecht, pp. 245-257.
- Nakanishi, K. and S. Tomioka. 2004. Japanese Plurals are Exceptional.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3, 113-140.
- 강범모.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1, 1-24.
- 강범모. 1999. 양화의미: 복수, 물질, 타입.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에서*. 한신문화사, 114-156쪽.
- 곽은주. 2001. The Semantics of Bare-formed Plural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6.2, 311-330.
- 곽은주.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Noun Phrases in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35, 3-38.
- 남기심, 고영근. 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기성. 2000. 영어와 한국어의 총칭성에 관한 대조 분석. *인문논총* 55.1. 부산대학교.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 송석중. 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통사구조와 의미해석*. 지식산업사, 서울.
- 이남순. 1982. 단수와 복수. *국어학* 11, 117-141.
- 임홍빈. 1979. 복수성과 복수화. *한국학논총* 2, 179-218.
- 임홍빈. 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 24, 3-50.
- 전영철. 2002.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 *언어와 정보* 6.2, 83-104.

전영철. 2003. 한국어 총칭 표현들의 의미론적 분석. 언어학 37, 267-295.

조영순. 2001. 총칭문과 복수성. 언어와 정보 5.2, 75-86.

접수 일자: 2004년 10월 31일

게재 결정: 2004년 12월 1일